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최*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헌츠빌, 텍사스
파견대학	샘휴스턴 주립대학교	파견기간	2015.08.20 – 2016.05.12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샘휴스턴 주립대학교는 텍사스 헌츠빌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밝고 아주 좋습니다. 스포츠경기, 콘서트, 연극, 강연회, 대회, 파티 등등 교내 행사나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한 주 마다 스케줄을 정리해서 찾아 다니면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ELI Reading level3</p> <p>저는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학과 어드바이저 교수님의 도움으로 인터네이셔널 오피스 부탁해서 약 두 달 동안 ELI 수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학생들도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실력을 높이고 정규수업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ELI 수업은 순천향대에서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p> <p>Public speaking</p> <p>Terri Jagers 교수님 수업이었습니다. 워낙 학교에서도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무엇보다 샘휴스턴 수기를 남겨주신 선배님들이 멋진 교수님이라고 해서 듣게 됐던 수업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수업은 정말 인생수업이었습니다. 이십 명 정도 되는 미국인 학생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준비하고 발표를 한다는 게 많이 어려웠지만 어려운 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p> <p>First Aid-Red Cross Instructor Course</p>

	<p>Kinesiology 학과 전공 수업이기도 하지만 교양 수업으로도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배우는 수업으로 평소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던 터라 한국과 미국의 응급처치 방법의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건계열의 학생이라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미국의 적십자 응급처치 자격증(2년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Racquet sports/ Soccer and Basketball</p> <p>두 수업 모두 Kinesiology과 수업이고, 타과 학생들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는 한국 교수님께서 하셨던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분위기는 자유롭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육수업 같은 느낌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다들 운동을 잘 할 것 같지만 그냥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사람은 잘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못 합니다. 부담 없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p> <p>그 밖에 전공 수업으로는 Prevention and care of injuries, Intro to Athletic Training, Care of lower extremity, Taping and Bandaging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학기 시작 전에 인터네이셔널 오피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엽니다. 그 때는 꼭 가셔서 주의사항,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어색하지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면서 친구도 사귄 수 있습니다.</p> <p>인터네이셔널 오피서들 중 주로 조던과 데이나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두분 다 다정하고 잘 챙겨주십니다. 특히 데이나는 한국에서 8년 살다 미국으로 돌아온 거라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압니다.</p> <p>그 밖에 인터네이셔널 오피스에서는 Asian Market Trip, International Fair, Halloween Party 등 주최하는 행사들이 많았는데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좋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p>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라고 겨울엔 별로 춥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얇은 이불, 얇은 옷들 위주로 준비했는데.. 겨울은 겨울입니다. 날씨가상으로 굉장히 추울 때도 있고요, 여행계획을 세우다 보면 동부나 북부로 가게 되면 많이 추우니 두꺼운 옷들도 적절히 챙겨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p> <p>비가 올 때면 물난리가 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내에서도 물이 하수구로 잘 빠지지 않아 발목 깊이까지 물이 찰 때가 많습니다. 우산(작으면 불편)과 장화(와서 일찍이 구매)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교도소가 학교 두 블록 뒤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불안함을 느꼈지만 저녁에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생활하는데에는 안전한 편입니다. 교도소가 있는 만큼 경찰들도 자주 순찰을 돌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활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이 들지만 몇 번 학교 내에서도 여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캠퍼스 내에서도 어두워지면 으스스한 곳은 피해서 다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V)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Encore at Sam Houston</p> <p>주소: 1410 Nottingham Street, Huntsville, TX 77340</p> <p>http://www.encoresamhouston.com/</p> <p>Encore 아파트는 학교에서 걸어서 약 20분,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아침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학교-아파트 셔틀버스를 약15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숙소 시설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농구장, 배구장, 수영장, 헬스장, 컴퓨터실, 게임장, 커피와 시리얼 제공 등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신경 써주는 편입니다. 집 내부도 깔끔하고 각자 방의 화장실이 하나씩 있어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다만 집 계약서에 사인 할 때 꼼꼼히 보시고 (특히 거주기간과 한국으로 돌아올 때 문제시 되는 게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세요.) 계약서를 1년 동안 잘 보관해두세요. 평소에 지낼 동안에는 오피서들이 나름 괜찮았는데 방 뺄 때는 일 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덤터기 씌우려는 의도도 보였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V)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V) 직접 요리 (V)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과 점심은 주로 집에서 먹거나 교내에서 피자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을 사먹었고, 저녁은 친구들과 나가서 사먹거나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학교에 Old-Main Market이라는 카페테리아에서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가격대가 약10불 정도라 한 학기에 세 네 번 정도 갔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시라면 굳이 meal plan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통학은 아파트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Encore, Brook place, Forum 등 약 다섯 곳 정도의 아파트에서 셔틀을 운영). 그렇지만 대부분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주말에 학교에 가야 할 때에는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학생이라면 저는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셔틀 운영시간 외에 이동할 때, 셔틀버스 고장 시, 주말에 학교나 주변을 돌아다닐 때 유용합니다. (Academy나 Walmart에서 구입하거나 주말에 주변 Garage Sale을 통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p> <p>휴스턴이나 다른 도시로 가고자 할 때에는 친구에게 라이드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정이 안 될 때에는 다운타운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석방될 때 그레이하운드 버스(같이 타지는 않습니다)를 이용하기도 하고 버스 내에서도 버스터미널에서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총 약 \$1,400	오고 가는 여정 편도로 끊음

Fees		
보험료	\$1,453 (한 번만)	외국인 학생 보험 (무조건 학교 보험 들어야 함)
숙소	한 달 약\$500	집 세 \$465, 유틸리티 \$25~40
식비	한 달에 약\$200	식료품 구입비, 간식비, 외식 모두
교통비	한 달에 \$10~50	친구 기름값이나 그레이하운드 이용 시
책값	약 \$150 ~ \$250 (한 학기)	듣는 과목마다 천차만별
휴대폰요금	한 달에 약\$40	티모빌 패밀리 요금제
여행비	약 \$3,000	겨울방학, 봄방학, 학기 중 여행
선물	약 \$600	가족, 친구, 친척 선물
합계	약 \$14,000	약 16,3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집을 알아 볼 때 최대한 빨리 알아보세요. 기숙사를 신청할 경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외부 아파트도 빨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메일을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전에 친척, 아시는 분들이 잘 다녀오라고 용돈 챙겨주시고 하실 텐데요. 미리 용돈 주신 분들 이름 메모장에 적어 놓고 한국 돌아갈 때 사갈 선물 비용도 미리 따로 어느 정도 빼서 봉투에 넣어 놓으면 편한 듯 합니다. 나중에 누구누구 선물을 사가야 하는지 헛갈리기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는 비상금이 되기도 해서 유용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씨티은행 국제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오시길 추천하고 (두 개 발급해달라고 하면 잃어버렸을 때나 오류 날 때 유용) 부모님 신용카드 중 가족카드가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오면 여행할 때, 특히 차를 렌트할 때 좋습니다. 은행의 경우 현츠빌에는 Bank of America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체크카드인 BEARKAT CARD(Higher One)를 이용했고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입금할 때에는 씨티은행을 이용해 Higher One계좌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치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미국에 도착 했을 때부터 약 세 달간 굉장히 긴장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항상 얼어붙어 있을 때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첫 수업, 첫 교수님 오피스 방문, 첫 파티 등등 식은 땀 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곳곳이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미국생활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든 순간 서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같이 지낸 동생들, 한국인 교수님들, 목사님 가족 분들께서 힘이 많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어만을 쓰겠다고 외국인 친구들만 사귀는 것보다 가끔은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그곳에 사시는 한국교민 분들과도 교류하면서 외로움, 서러움도 달래고 좋은 정보도 얻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며 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될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알아보는 만큼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 열심히 알아보다 보니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외국인 친구들 사귀기 기회도 많아지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고 꼭 지원해서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체대 학생이다 보니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 동기도 거의 없어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고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토플점수를 만드는데 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선배님들이 남긴 수기들을 보며 언젠가 나도 다녀와서 멋지게 수기를 남기겠다는 각오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다녀와보니 남들보다 오래 걸렸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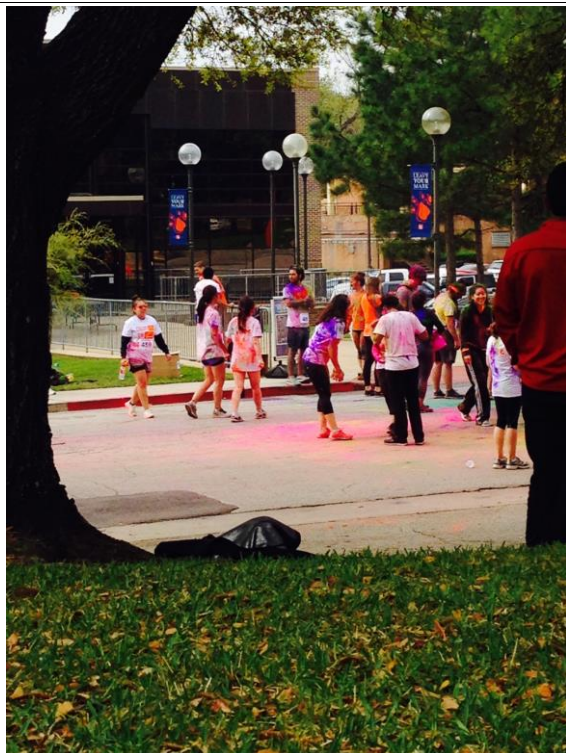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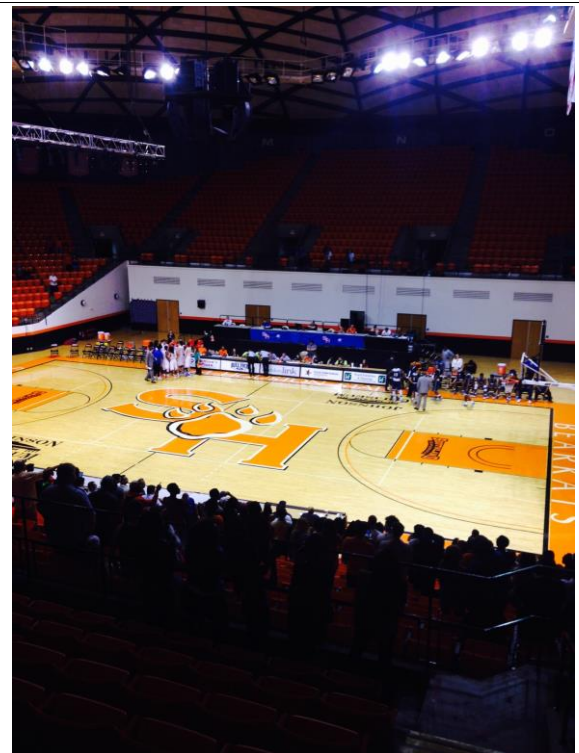
학교 풋볼 선수트레이닝 룸



다운타운에서 열렸던 헌즈빌 컨트리 음악 페스티벌



학교 컬러런 5K 달리기 행사



학교 농구 경기가 있던 날



학교 근처 공원에서



일년 동안 같이 수업 듣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함께